

“협업·다양성 지닌 의회 만들것”

“소통·상생으로 열린의회 정립”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인터뷰



김동찬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은 12일 “의원간 협업 의회, 협의 의회, 집단지성과 다양성을 지닌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우선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원 구성에서 불거졌던 의원간 파열음을 하루 빨리 수습해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의사일정도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행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단합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의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협업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수 많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뛰어난 조정 능력과 현실감

변화와 혁신 주도 의회 정립
간담회·토론회 등 활성화
시민 뜻·의견 적극 반영
정책대안 제시 의회 될 것

있는 대처 능력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광주

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과의 소통과 의회 혁신, 정책연구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해 조례 및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뜻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실질적인 협치, 협력의 거버넌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로서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고, 의회가 언제나 시민 속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 권위주의식 자세 등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감 있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해져 가는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전문화된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 광주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선의 이용재(55·광양1) 의원이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장은 의장 선거에서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0표를 획득, 28표를 얻은 김기태 의원을 2표차로 따돌리고 의사봉을 거머쥐었다.

1차 투표에서 29-28표, 2차 투표에서 29-29표 동수가 되면서 3차 결선 투표까지 갔다. 3차에서도 동수가 되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 의원이 의장이 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1표가 이 의원에게 이동하면서 30-28표로 어렵게 당선됐고, 이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 의장은 1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상임위 중심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의원 전문성·자율성 보장
소수당 의견 충분히 수렴
전문보좌관제 적극 활용

집행부와 의회 모두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탓에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의장은 “집

행부가 잘못하면 야당이 돼 강하게 질책하겠다”며 “우리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소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당 소속 의원은 4명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반영하겠다. 위촉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우선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5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각각 2명씩이다.

이 의장은 “11대 의회는 70%가 초선 의원”이라며 “경험 부족의 단점도 있지만 열정적 의정활동 펼칠 것이라는 장점도 있다”면서 “세미나·워크숍·연구모임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전문보좌관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와 달리 전남은 지역이 넓은 탓에 도의회에 출근하는 것보다 지역구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보좌관을 뒤 의정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시의회 세싸움...광주시 조직개편 차질 우려

12일 상임위서 주류-비주류측 ‘갈등 여진’ 이어져

경제부시장→문화경제부시장 변경·1실4과 신설 처리 불투명

광주시의회가 파행 끝에 ‘반쪽선거’로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의원간 세싸움이 계속되면서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현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주류측에서 ‘본연의 업무는 해야 한다’는 내부의 선(先) 정상화 요구가 제기되면서 12일 주류 측이 주도하는 상임위 구성이 이뤄졌지만, 양측의 ‘갈등 여진’이 여전히 향후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파행이 이어지면서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요 업무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조직개편 등이 올라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처

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승인된 146명을 반영해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1실 4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을 문화와 경제 부문을 전담하는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 파행 등으로 조직개편안이 아직 시의회에 접수되지 못했지만 시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로서는 조직개편안에 이응섭 시장 임기 초기 민선 7기 시장 방향 등을 반영한 만큼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전체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 시의원들인 상태에서 내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은 민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업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보고 등이 예정돼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김동찬 의장은 “조직개편안 등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최대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5시에야 본회의를 속개해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시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17일, 운영위원장 선거는 20일 치를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동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민간단체들 방 비워야 하나

광주시 4개과 18개팀 증설 근무공간 부족

민선 7기 광주시가 4일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어떤 민간단체들이 시청 내 공간을 비워주게 생겼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조직인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4실 6국 3본부 62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4개과 18개 팀이 증설되는데, 이들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당장 시청사에 공간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는 민간단체와 사업소에 눈길이 쏠렸다. 현재 시 청사에는 지속가능발전협

의회,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 광주시사무소, 남북교류협회의 등의 민간단체가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도 공간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단체에 제2청사 등 다른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들은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시청사에서 오랜 기간 자리하면서 관

계기관, 회원 등이 자연스럽게 시청을 찾아 업무를 추진했다”며 “갑자기 공간이 바뀌고,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공간이 얼마나 되고, 현재 상태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이 커지고 근무인원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히 설계를 해보고 정 어려울 경우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도시가스 소매 비용 11% 인하...주택용은 동결

전남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평균 11% 인하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과 수송용은 동결돼 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2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매 공급 비용을 7월부터 11.01% 인하

하는 안을 의결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 요금(83%)과 도시가가 승인하는 소매 공급 비용(17%)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하 조치로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1MJ

=238.9kcal)당 2.2663원에서 0.2496원 내린 2.0167원으로 조정돼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 기간 총 62억원 가량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특히 여수산단 산업용 도시가스는 31.62% 인하됐다.

그러나 13개 업종 가운데 주택용, 수송용 가스 요금은 동결돼 도민들은 체감 효과는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러분을 추억과 청청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땅끝 해남으로 초대합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여름휴양지... 누구나 한번쯤 오고싶은 곳 땅끝해남!!

송호해수욕장 7/13~8/13 | 사구미·송평해수욕장 7/16~8/13

해남군 HAENAM-GUN